

날짜 2022-06-12(D1)      본문 창3:22-24, AC.298-313  
번호 2311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30, '전능하고 놀라우신'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시작 주기도  
찬송 찬30, '전능하고 놀라우신'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창3:21, AC.292-297  
찬송 찬29, '성도여 다 함께'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지방회 지난 9일(목) 오전 11시, 천안 생명샘교회(정치유 목사)에서 세대전 지방회 6월 정기모임 있었습니다.

헌금기도, 축도

<sup>10</sup>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sup>11</sup>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sup>22</sup>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sup>23</sup>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sup>24</sup>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를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귀 기울였으며, 많은 귀한 주제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사후 영이 된 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고통의 상태인데, 그것은 마치 생전에 팔다리가 생으로 찢어지는 고통과도 같다고, 모든 악과 거짓의 결과인 죄에는 벌이 따르며,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은 비록 악과 거짓으로 하나 되었어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들 영이면서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벌 차원을 넘어서는 진정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되며, 그것도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라고, 사랑이신 주님은 그 당시 태고교회 후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대로 이 지경까지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신성, 곧 주님의 선과 진리를 알고 시인, 진심으로 받아들인 제가 이후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깨끗이 씻겨놓았더니 다시 똥오줌 흥건한 바닥에 뛰어 들어가 좋다고 똥구는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